

블로그(Blog)에 나타난 도시공원 미시담론 - 서울숲을 대상으로 -

이제이* · 성종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조경학 전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Micro Discourse about Urban Parks in Blogs - In the Case of the Seoul Forest -

Lee, Jaei* · Sung, Jong-Sa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determine the micro-discourse from blogs as personal media that reflect citizens' actual opinions of the Seoul Forest without intervention of experts. Furthermore,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discourse analysis was selected to analyze the micro-discourse regarding the Seoul Forest in a time series. The extracted samples of blogs by year were intended to identify the comment section of the process of change and the discursive structu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rom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Seoul Forest to the present, it is divided into four chronological periods along with individuals' micro-discourse with social changes. During the beginning of the development of the Seoul Forest, the social discourse was formed, and in the next period, the micro-discourse was developed with a more emotional and complex discourse. In the formative period, four or five years later, the discourse reflected the civic consciousness of development more than ever, showing the diversity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t the Seoul Forest. In the growth period, as the users' experiences had been accumulated, the users started writing about the role of the Seoul Forest in their own words. This can also be called place discourse.

From the individuals' micro-discourse, this study shows the discourse structure of how individuals think about the Seoul Forest in each period. Unlike the experts, the micro-discourse contains specific daily interactions, experiences, and the stories of individuals who actually use the parks. It also shows how users reproduce and understand the space. In this respect, this is the most significant finding of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the emotional description of a place that actually functions as a discourse about city parks, and confirms that blogs could be used as a space to form discourse and as a research tool to read the trends. In accordance with these results, this study has described not only the discourse of experts, but also how the discourse of individuals' comments can be an important part of the discourse of modern urban parks.

Key Words: Discourse Analysis, Social Discourse, Complex Discourse, Experiential Discourse, Place Discourse

Corresponding author: Jaei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s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10-3626-3526, Fax: +82-2-874-7181, E-mail: jay@snu.ac.kr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인식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파악할 수 있는 블로그(blog)를 통해 서울숲을 둘러싸고 펼쳐지는 일반인의 미시담론을 분석하였다. 블로그를 매개로 한 일반인의 미시담론 형성 배경과 요인 등을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법을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담론분석을 위주로 하여 블로그에 게시된 미시담론의 내용과 그 형성 배경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숲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는 서울숲 조성과 관련된 주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설계가나 서울시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었다. 둘째, 형성기의 서울숲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숲을 비교적 관점에서 평가 및 서술하면서 긍정 및 부정적 장소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셋째, 조성된 지 4~5년 후인 전개기에 게시된 블로그에서는 주로 공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난 후의 이용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성숙기에 들어서는 이용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 서울숲을 해석한 장소적 담론이 주가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일반인의 미시담론들을 통해 실제 이용 주체가 각 시기별로 서울숲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그 담론적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미시담론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개별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의 고찰을 통해 일반인 이용자가 장소를 어떻게 재현하고, 이해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였다.

주제어: 담론분석, 사회적 담론, 복합적 담론, 이용적 담론, 장소적 담론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미디어(media)의 발달은 인류 역사 이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의 방법과 범위, 영향 등에 있어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미디어(digital media)의 발전이 인간이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욕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충족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개인'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터넷에 접속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 및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가상공간에 자유롭게 게재한다는 것은 블로그(blog), 트위터(twitter) 등과 같이 개인화된 공간 즉, '1인 미디어'의 발달이 가져온 중요한 변화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 아니라, 자신만의 정보를 생산하며, 이를 타인과 공유한다. 다양성이 중시되고 개체에 대한 주목이 커진 현대사회에서는 '1인 발언'의 무게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1인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다.

조경 분야에서도 이러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¹⁾. 특히, 전문가에 의해서만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운영되던 예전 방식에서 탈피하여 조성부터

운영·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현재의 소통적 설계 및 운영 방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도시공원에 대한 더 큰 애착과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이것은 능동적인 이용과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다시 미디어를 이용하게 된다. 이때부터는 공원 웹사이트와 같은 공공적 미디어가 아닌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매체에 온전히 자신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기록한다.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하던 미디어 이용은 자신을 표현하고, 노출하기 원하는 현대인의 특성과 결합하여 개인적인 공간, 즉 1인 미디어의 이용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처럼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이 언제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발신하는 우리 사회의 정보소통 주체가 된 점(Kim *et al.*, 2009: 20-21)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공유하는 경험과 느낌 등을 읽어낸다면,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일반인의 주관적인 생각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사용자들의 주관적인 생각은 시민들의 특정 도시공원에 대해 갖는 담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창이 된다. 전문가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도시공원에 대해 이용자들이 갖는 생각을 파악하는 것은 변화와 그 과정을 중시하는 최근의 설계 경향과 부합한다. 물론, 비전문적인 일반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된 공원 계획 및 설계가 반드시 양질의 수준 높은 공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에 주목하는 것은

실제적인 공간을 만들에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인식 차이를 좁혀 보다 소통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인들의 담론 즉, 미시담론의 시기별 형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일반인이 도시공원을 해석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단순히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이용자가 새로운 경험과 의미를 생산해 낼 수 있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인간과 공간 간의 새로운 관계와 반응을 생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

1) 1인 미디어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의 이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공간에 대한 정보나 경험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인 미디어를 이용자의 생각 및 의견 등이 여과 없이 드러난 공간이라 상정하고, 여러 1인 미디어 중에서도 공간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 장소 경험에 대한 일상적 이야기와 그에 따른 장소감 등을 자유롭게 게시하고, 간편한 검색 기능을 통해 개인이 가진 기억의 재현을 오래도록 가능하게 하는 블로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참여형 도시공원

‘시민이 함께 만드는 참여의 숲’이라는 강령을 내걸고 2005년에 조성된 서울숲은 주체적인 시민 참여로 인한 서울숲만의 공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적 측면의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공원을 이루는 한 요소로서 공원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원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등 그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 또한 일종의 시민참여로 보고, 서울숲을 위한 시민모임인 서울숲사랑모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및 웹사이트, 서울숲 웹사이트 등이 매우 활성화된 점은 시민참여 및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서울숲에서의 활발한 참여는 장소에 대한 의견과 시각을 자신의 의지로 1인 미디어에 기록하는 행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대상지를 서울숲으로 선정하였다²⁾. 또한, 서울숲이 가진 역사성 및 장소적 정체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보다 더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3. 연구 방법

1인 미디어를 매개로 한 일반인의 서울숲 담론을 해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법 중 담론분석을 선택하였다. 1인 미디어에 게시된 이용자의 의견을 하나의 담론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형성

된 과정과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알아보려 블로그의 게시물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된 ‘서울숲’ 관련 블로그 글을 수집하기 위해 국내 도메인별 웹사이트 순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였다³⁾.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는 ‘서울숲’과 ‘서울숲공원’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상세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서울숲과 관련된 검색어지만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단어들을 ‘제외하는 단어⁴⁾’에 포함시켰다. 검색 결과, 2013년 4월 8일을 기준으로 총 63,929건의 블로그 게시글이 검색되었다. 앞서 언급한 열 두 개의 단어가 제외된 검색 결과이지만 그 외에도 특정 음식점이나 최근 개봉된 서울숲 지하철 역 등의 소개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서울숲 이용과 관련된 글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확도 순으로 재배열을 거친 후, 상위 노출된 30개의 블로그를 연도별로 추출하였다⁵⁾. 서울숲이 개장된 2005년은 6월부터 정식 개방을 하였으므로 6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인해 15개의 블로그만을 추출하였고, 2013년 또한 검색 시점을 고려하여 15개의 블로그만 추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0개의 블로그와 2005년, 2013년의 각 15개 블로그를 합하여 총 240개의 표본이 추출되었다. 연도 별로 표본을 추출한 것은 미시담론의 변화 과정과 담론적 구조를 함께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는 도시공원 중 하나인 서울숲이 1인 미디어에서 담론으로 구성되는 텍스트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이를 통해 개인의 감정에서 출발한 현대 도시공원에 대한 생각이 언어적 표현을 거쳐 공적 담론화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블로그를 포함한 1인 미디어는 주로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연구의 일환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1인 미디어를 공간과 관련시킨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1인 미디어에 게시된 경관 이미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행태 혹은 이용자의 인식 분석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1인 미디어의 이용 가치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있다.

Bark and Kim(2011)은 영화, 소설 등과 같은 재현 매체를 통한 경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1인 미디어를 연구하였다. 블로그에 나타난 선유도 공원의 구체적인 경관을 파악하고, 블로그에서 그 경관을 어떤 방식으로 포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았다. Park(2012b)은 선유도공원에서의 공간 소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 중 하나로서 블로그에 게시된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공원의 경관을 재현하고 재생산하는 이용자들의 행태

를 공원의 이미지화에 따른 경관적 이용이라고 해석하였다. Cho and Kim(2012) 또한 블로그를 삼청동길의 이용자 행태를 폭넓게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으며, 블로그를 통해 분석한 방문자 행태와 실제 건축물 이용 현황 및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방문자 행태를 비교함으로써 블로그의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주로 분석 도구의 측면에서 1인 미디어에 접근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궁극적인 도시공원의 이용주체인 개인들이 기록하고 운영하는 1인 미디어의 개체성에 주목하며, 1인 미디어가 여론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인만큼 개인들이 기록하고 공유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미시담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를 고찰할 것이다.

2. 담론과 미디어 담론

'담화', '언술'이라고도 해석되는 '담론'의 사전적 의미⁶⁾는 특정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담론은 이와 같은 뜻을 넘어선다. 이의 사용빈도가 늘어나면서 '담론'이 사용되는 곳은 훨씬 넓어졌으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치담론, 정책담론, 사회담론, 문화담론이라는 용어로 '담론'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제 후기 자본주의의 다양한 사회현상과 문화를 개념적으로 포착하는 대표적 단어(Lee et al., 1996: 257)이기도 한 담론은 수많은 이론가들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하나로 정의내릴 수 없게 되었다⁷⁾.

대표적으로 푸코(Fault)는 담론이 '무엇인가'와 같은 정의의 문제보다 '무엇을 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 하에서 담론이 생성되고 변화하는지에 주목했다(Lee, 1993; Cho, 2010: 131에서 재인용). 담론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담론의 다양한 형태 및 포함하는 내용이 개인을 넘어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 인식과 실천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Cho, 2010: 131).

이처럼 담론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반영한다면, 그 담론이 표현되고 구합되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은 미디어의 역할이다. 현대 사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복잡잡하기 때문에 매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개인이 사회를 제대로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곧 미디어가 한 사회의 담론이 구성되는 장이며, 동시에 담론이 매개되고 재생산되는 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디어에 나타나는 담론들을 연구하는 것은 개개인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발화되고, 그 이야기에 내포된 의미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Bell and Peter(eds.), 1998).

3. 미시담론의 장으로서 블로그

위에서 언급한 미디어 담론분석에서 미디어는 주로 TV, 신문 등을 통칭하는 매스 미디어(mass media)를 가리키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블로그에 그대로 적용하여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간'과 관련하여 보도된 내용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그 공간에서 벌어져 모든 것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의 관심을 끌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내용만 선별하여 보도된다. 특정 전문가나 특정 세력의 시각이 반영되어 보도되는 매스미디어의 획일적인 내용은 그 공간에 대한 다양한 장소 의미 해석의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편, 개성과 다양성이 증시되는 현대정보사회에서는 급속도로 발전한 인터넷과 모바일기기의 도움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매스미디어의 '공간' 관련 보도와 다르게 블로그를 통해서 그 공간을 직접 이용한 사람들의 실제 경험담을 접할 수 있다. 한 공간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개입되는 블로그에서는 개인에 의해 생성되고 매개된 수많은 생각들을 읽을 수 있으며, 각각의 생각과 의견들이 담론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로 수렴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장이자, 공공공간인 도시공원 내에서의 경험과 행위, 그들에서 비롯된 의미가 공개적인 매체를 통해 표현되고, 다중에게 소통된다는 점에서 블로그의 내용들은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한 담론들은 개별적, 주관적, 일상적이기 때문에 미시적 담론으로 구성되며 각 개인이 생산해 낸 미시담론을 통해 공원의 특정 공간과 도시공원, 나아가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줄 것이다. 더불어,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로의 전환이 제기되는 현 시대(Korea Landscape Architecture Newspaper, 2013)에 일반인들의 미시 담론에 대한 고찰과 이해는 도시공원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

담론이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의 시각이나 관점을 반영하고, 그러한 점들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언어나 기호의 양태를 띤다(Baek, 1995: 289)는 점에서 '자신의' 시각과 의견이 들어간 블로그의 내용은 담론이 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한 매체로서 블로그 또한 담론이 구성되는 장이라고 여겨진다.

III. 서울숲 미시담론 분석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숲이 조성된 초기(2005~2006년), 서울숲이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형성기(2007~2008년)와 전개기(2009~2010년), 블로그에서 서울숲과 관련된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성숙기(2011~2013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숲 관련 게시물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7,000건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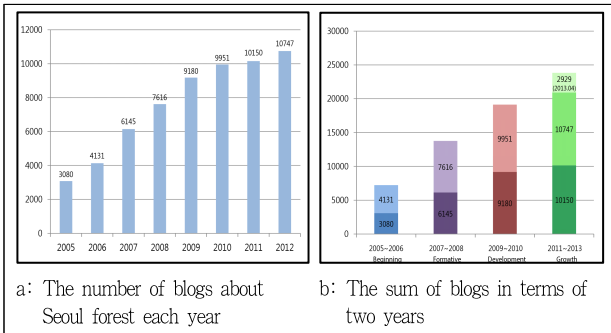


Figure 1. The change of the number of blogs regarding Seoul Forest from 2005 to 2012

참조). 그 사이 블로그 이용자가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블로거 (blogger) 중에서 그만큼 서울숲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 별 분류는 각 연도에 서울숲 관련 게시글이 증가하는 수에 따라 2년을 분류 단위로 하여 2개년도 합이 10,000건 이하를 초기, 15,000건 이하를 형성기, 20,000건 이하를 전개기, 20,000건 초과를 성장기로 분류하였다. 이는 1인 미디어가 갖는 특징 중 정보 전달의 단기성과 휘발성을 고려하였을 때 적당한 기간이라고 판단된다. 단, 연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례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각 시기마다 사례를 제시할 때 1년 전후의 사례도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1. 서울숲 조성 초기(2005~2006년)

서울숲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의 게시물에는 이곳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들의 감정 및 의견이 대부분이다. 서울숲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과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을 서술한 기록들이 있는 반면, '서울숲'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숲'을 기대하고 방문한 시민들은 앙상한 수목과 정비가 덜 된 모습에 실망스러움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드러냈다(Table 1 참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는 서울숲 개장이 시기상조라는 인식과 그와 관련한 비판적 실망감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비판이 아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서울숲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모습에 대한 실망감을 어느 정도 메워준다.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 방문객들은 '세월이 흐르면...', '수십 년 후에는...', '머지않아...'와 같은 표현과 함께 앞으로의 발전될 모습을 기대한다고 서술하였다. 한편, 이 시기에 작성된 글에는 다른 시기와 다르게 서울숲 조성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나 서울시장에 대한 언급 빈도가 4회 있었다(Table 2 참조).

Table 1. Examples of micro discourses in the beginning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05	World according to Jennis, It's my world	The construction has not done yet. Construction vehicles around the park indicate that here is a man-made forest. (...) This giant forest is in the center of the most expensive land in Seoul. We hope that the citizens would have a rest and find their life in there.
2005	Jetlag Dreams	However a good amount of care had been taken, the park needs more to be forested. It would take a while that the released elks have the park mature.
2006	번데기의 꿈	While in an early phase, Seoul Forest would become the most visited park for the citizens who wish to find the leisure and peace.
2006	뽕이의 감칠맛 나는 세상이야기	Looks like special efforts have been given to every detail of the park design to reflect on a natural setting. But it is still early to call the park "forest" since they hastily planted too many young trees to meet the park opening date.

Table 2. Examples of micro discourse regarding a local government or a mayor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05	래희,래은이네 가족이야기	"Seoul Forest is made by the Mayor Lee, Myung-bak for citizen for the first time in Seoul. My family visited Seoul Forest to see how it has changed. Ttukseom(뚝섬) district was stark because of foreign workers, many factories and overground railway. (...) It's a nice thing that there is a green-open space in Ttukseom, which was the epitome of a desolate landscape."
2005	FactoryDottcat	"Seoul Forest is big and cool so I feel good when I was there. But, there were some evidences of shoddy construction and they have started repairs after heavy rain. If it was set out perfectly at first, there is no need to repair with a lot of money. The Mayor, Lee still put emphasis on outcome."
2005	이런저런 이야기의 공간	An image of the Chunggecheon(청계천) reconstruction site has crossed my mind. The mayor of Seoul seems to be planning many redevelopment plans these days. Well, they are appreciable, of course, but I want to see the plans rather tangible and profitable.
2006	MuSt Have 열정 , 용기 그리고 무모한	It looks more crowded and complex than my first visit. I would like to praise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made it for the citizen. Although somewhere get dirty and it does not look good, it will be better if well preserved.

2. 형성기(2007~2008년)

형성기에 생산된 미시담론의 내용도 초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첫 방문과 재방문 시의 경관을 비교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공원과 서울숲을 비교하는 내용이다(Table 3, 4 참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서울숲 내 경관은 미시적 차원의 경관 변화로서 재방문한 이용자들에게 만족감을 안겨주었음을 알 수 있다. 첫 방문 시, 서울숲의 명칭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숲의 이미지와 서울숲을 비교한 이용자들은 허전한 모습의 서울숲에 아쉬움을 드러내었으나, 그로부터 약 2~3년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한 이용자들은 변화된 경관과의 비교를 통해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긍정적 미시담론은 2~3년 동안 자라난 수목의 변화에 따른 것이 가장 많았으며, 각각 다른 계절에 방문하면서 느낀 계절감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숲을 처음 방문한 이용자는 초기와 비슷한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한다.

타 공원과 비교를 통한 서울숲은 '서울숲이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서울숲이 좋고, 나쁜지 이용자들 나름대로의 평가를 보여준다. 국내 공원과 비교는 주로 올림픽공원(5건)과 선유도공원(8건), 어린이 대공원(1건)에 비교하였으며, 국외 공원은 보스턴(Boston)의 공원(1건)과 뉴

욕(New York)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2009년 3건)에 비교하였다.

3. 전개기(2009~2010년)

이 시기에 기록된 블로그 글에는 주로 공원의 규모에 대한 느낌과 전체적인 분위기,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난 후의 느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Table 5 참조). 공간을 체험하고 적은 느낌은 60개의 표본 중 48건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 내용은 이전에 비해 더 구체적이었다. 프로그램 참여 후의 감정을 기록한 글은 총 7건으로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2건 발견된 것에 비해 표본 상에 나타나는 수가 커졌다. 블로그 이용자들은 어느 정도 정착된 서울숲에서 이용자로서 직접 겪고 느낀 바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간을 소개하고 풍경에 대한 소극적인 감정을 드러내던 이전과 달리, 경험적 관점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감정을 드러내고 평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성숙기(2011~2013년 04월)

성숙기에는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형성되는 미시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또한 반

Table 3. Examples of micro discourse about comparison between the first and return visit in formative period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07	빛나는 무인도	It was pretty empty when I visited there two years ago. But the park has been much forested, perhaps due to the seasonal high temperature or the enough time passage. No bugs were there, just a few people could be seen, because it was a weekday.
2007	타코&방새&유빈	I think this park has organized more than last year. If there will be many places to sit and rest, Seoul forest will be a nice rest area and park.
2008	순간이 영원해 지는 곳	I have visited Seoul Forest twice before. When I visited here not long after the park opened, there was a lack of the greenness. But, now I feel much better and it has been improved a lot.
2008	세상사랑	"Seoul Forest was opened in June, 2005, I dropped by there at that time. It was so crowded and disorganized, but now, the park is forested and looks much better than before."

Table 4. Examples of micro discourse about comparison between Seoul Forest and other parks in formative period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07	Cool & Jazzy Life	When I visited Boston, I was moved by the fact that the park wa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city. Now, we have many urban parks in Seoul like any other Western cities. An atmosphere is calm and restfulness, I feel like taking a good rest. It is easy to access and large enough for crowd.
2007	Story teller	I think the park was designed with a decent amount of care and consideration: a family-oriented playground, a small-scale space for the school students, and interesting small public sculptures in every corner of the park. The park's mood is somewhat different from Seonyu-do Park.
2008	모다's Blog ... Fun with life!	I visit Seoul Forest for the first time. It is big and divided into several zones by themes. I think Seoul Forest is systematically organized than Olympic Park which is near my house. The sheer size of Olympic Park is bigger.
2009	나무엘	I had little knowledge of Seoul Forest when I visited there. Well, it was a big park rather than a forest. It was compatible to the Central Park in New York. I could picture an image of a New Yorker jogging with a dog on a park's runway.

Table 5. Examples of micro discourse in development period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09	다이빠	I found a pretty herbal garden in the park. The garden looked good with a remnant of an old house, on which the young herb plants would grow well. I roamed around the garden with a satisfaction.
2009	이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I applied for 'Action Volunteer Program' and made a "Protect the environment!" signboard with the children in a single-parent family. We got to be friends after having lunch and feeding deer at deer farm. It's been a pleasure for me to participate in such a good voluntary program.
2009	나는 내일의 ★	I feel really great about participating environmental festivals after becoming a college student. I am pleased that there are a lot of students who do volunteer work and feel warm companionship. I have had many kinds of experiences and learning from volunteering, it is different learning at school.
2010	RivErmAn- 잔잔한 Vandalist	Seoul Forest is not just a forest, but sort of a big garden complex. There are many things to look at, (...) Deep into the rainy Seoul Forest, I had sat myself at there while imagining strolling on a Buddhist monastery trail and smell the scent of the forest let me rest in wood.
2010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I have participated in the regular events in Seoul Forest since June 2006. Two years ago I have received an award honoring the volunteer workers who had worked for more than 100 hours. My affection and passion for Seoul Forest is still on the way. I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sweaty and warm-hearted volunteer workers.

Table 6. Examples of micro discourse in growth period

Year	Name of blog	Contents
2011	made in 초록구슬	There are many things to see and experience in Seoul Forest. I participated in the public meeting program called "Living Library". Through this program, I was able to talk with new people. It was like three different colors are painted on the white paper in my heart.
2011	구구월드	As soon as I entered the park, I could see greenness and a clear landscape. I can't believe that I stand on the center of a city, Seoul that is blocked by high buildings. Trees, grass, a fountain, kids romping around the park and the parents looking at them with smile delightedly.. I think that Seoul Forest is a really good present to all the families.
2012	Antic Nomad	I breath in a big urban lung called Seoul Forest. Looking from outside, it was just an another large urban park. But when in the inside, I saw many natural and cultural features, like a pond, trail, ecological garden, and an outdoor open theater.
2012	푸르미의 산림이야기	I feel very refreshed while looking at the park. I hadn't had this feeling when I had visited the park a few years back. The visitor's words, "A natural resort in the heart of the city" is not deceiving words. It is the greatest park ever, indeed.
2013	사비나의 평범한 블로그	A pigeon approached a deer's manger, but the deer seemed not being intimidated at all. Seoul Forest is a habitat for the plants and animals' symbiotic life. I have spent wonderful afternoon hearing the bird's singing, watching fish in the pond and eye-contacting with deer.

복적으로 서울숲을 경험하게 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용자들이 명사와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은 어떠한 곳이다.', '무엇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모습에서 장소로서의 서울숲에 대한 의견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Table 6 참조). 이용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서울숲을 상징화하여 서술한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느낀 서울숲의 다양한 역할을 함축하고 있다. '도심 한복판에서 느끼는 휴양림', '사막 속의 오아시스' 등과 같이 공원의 역할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글은 물론,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공간', '평화로운 공존동생이 펼쳐지는 곳' 등 서울숲을 묘사하는 언어들에 시민들이 실제로 공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와 이곳의 공원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 지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서술은 이용자들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타인이 알려준 것이 아닌 직접 체득하여 얻은 느낌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서울숲을 자신만의 상징적인 언어로 대치시켜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공간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이 담론들은 주로 여러 번 방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데, 이 시기의 표본에는 재방문자가 작성한 글이 39건으로 처음 방문한 이용자의 글보다 2건 더 많았다. 이들의 글은 어떠한 이유에서 서울숲을 꾸준히 찾게 되는지를 함축한다. 긍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는 성숙기의 미시담론을 통해 초기와 전개기, 형성기를 거치는 동안 서울숲이 많이 변화한 만큼 서울숲에 대한 시민의 시각도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서울숲 미시담론의 형성 요인 및 해석

앞서 살펴보았듯이, 담론은 개개인들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 구성원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담론을 구성하는 사회의 맥락을 이해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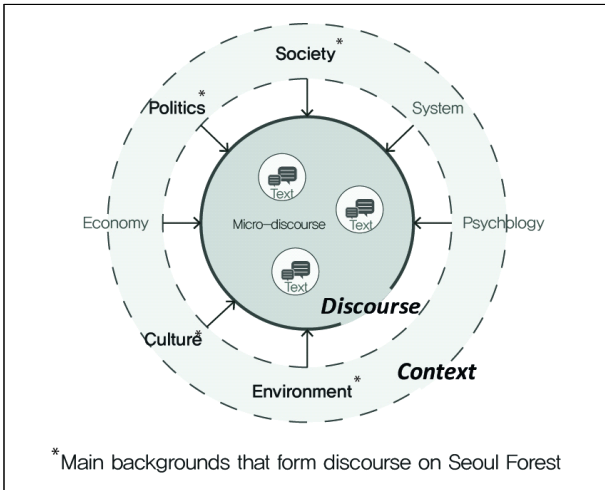


Figure 2. Social context that influences on forming and changing discourse

필요가 있다(Park, 2012a: 437)(Figure 2 참조). 이는 곧 담론을 형성시킨 배경이 된다. 담론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사회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Huckin, 2002: 353)고 주장한 허킨(Huckin)의 논리를 통해서도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을 형성 및 변화시킨 맥락을 파악하여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받는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기별로 서울숲에 대한 미시담론이 어떠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 배경을 각 시기의 미시담론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는 서울숲에 대한 이용 만족도의 인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후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더욱 다층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1. 사회적 담론: 정치 이슈에 대한 관심

2005년과 2006년에 형성된 서울숲 미시담론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숲이 조성되기 전 특색이라 불리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특색은 예로부터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이자 농경지, 자연풍광이 뛰어난 관광지 겸 사냥터로 활용되던 곳이었다. 특색이 개발의 바람을 타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1994년 서울시청사 이전대상지로 거론됐으나, 검토과정에서 용산미군기지를 대상지로 선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돝구장 건설계획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진됐으나, IMF사태를 맞으며 계획이 중단되었다.

1998년에 외국자본을 도입해 국제 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2001년에는 대규모 관광타운을 조성한다는 신틱섬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들은 민선3기에 들어오면서 '생활권녹지 100만평 늘리기' 사업 계획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울 동북부 지역에 대규모 녹지공

간을 조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오늘의 서울숲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Seoul City, 2006: 90).

실제로 서울숲 조성계획을 밝힌 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약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돝구장이나 차이나타운 대신 웬 공원이라며 반대를 많이 했었다(Choi, 2005: 99).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으나, 그 당시 일반인들 사이에는 한 대상지를 두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번복한 탓인지 실망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롭게 조성된 도시공원인 서울숲 그 자체보다는 '정치적·행정적 성과(물)'로서 서울숲을 대하는 시민들의 소감을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인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언급을 함께 한 서술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치가 및 조성 주체에 대한 언급은 시민들이 서울숲을 하나의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숲이 조성되던 해 9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계천 복원사업 또한 완료되었다. 정치적 선회와는 별개로, 시민들은 가시화된 서울숲과 청계천을 이용하고 평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주관한 정치인과 관련된 사회·정치적 언급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의 여론이 반영된 게시글들은 사회적 담론으로서 이용자 개인의 의견 뿐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집단적 의식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를 통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복합적 담론: 경관의 변화에 따른 만족

마찬가지로, 형성기의 지배적인 미시담론들을 형성시킨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성 당시의 대중매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의 '센트럴파크' 열린다"(The Cho-Sun Ilbo, 2005), "'서울의 하이드파크' 뚝섬 서울숲 18일 개장"(The Dong-A Ilbo, 2005)은 서울숲이 개장하기 전후로 주요 일간지에 실린 서울숲 관련 기사의 제목 중 일부이다⁸⁾. 서울숲을 외국의 대형 공원 특히, 센트럴파크(Central Park)에 비유하는 것은 '생태숲'이라는 또 다른 서울숲의 수식어와 모순이 된다는 비판⁹⁾도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울숲이 녹지 네트워크의 거점으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의 대형 공원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입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용자들은 건물로만 가득 찬 도시의 회색 경관에 녹색 경관이 유입된 것에 대한 만족감을 타 공원과 비교함으로써 드러내고 있다. 이는 거시적 차원의 경관을 고려한 서울숲의 열린 경계가 한 몫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둘레로 장벽이 없는 서울숲은 공원과 접하는 사유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세웠을 뿐, 공원을 위해서는 담을 두르지 않았다. 대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서울숲 진입로 위에 서 있게 되며, 그 진입로 끝의 교차로 모서리에는 서울숲의 입구가 이용객을 맞이한다(Jang, 2005: 96). 이와 같은 도시와 공원의 유기적인 연결은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다른 공원과 비교를 하도록 하고, 외국의 유명

공원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명확한 비교 대상과 기준이 성립된 비교적 관점은 한 장소에 대해 긍정 및 부정의 복합적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그 미시담론을 접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장소에 대한 맹목적인 칭찬 혹은 비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이용적 담론: 시민의식¹⁰⁾ 성장에 따른 참여 증가

민선 시기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예산 8조 원 중에서 공원녹지 예산은 그의 1퍼센트인 8백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민선 시기가 되면서 2004년의 경우 전체 예산 11조 중에서 4천5백억 원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입되었다. 1%에서 4~5%로 급격히 상승된 것이다. 서울숲의 경우에는 이 단일사업에만 2천4백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의 흐름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 결국 시민 의식의 변화 덕분에 뚝섬부지가 공원화될 수 있었다.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시민의식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기본적인 가치-민주적 가치, 준법정신,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봉사의식 등-를 내적 요소로 삼는다(Mo et al., 2010: 80-81). 서울숲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참여의식·공동체의식·봉사의식을 함양시키는 발판을 마련하여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운영의 시범적 모델이 되었으며,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그 가치는 가시화되었다.

서울숲의 참여 증가 현상은 시민들로 하여금 이용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담론은 물리적인 시설 및 공간들이 참여와 체험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공원을 가꾸기 위한 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통해 시민이 공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소극적인 참여에서 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참여하는 총체적 참여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공원은 단순히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의식이 변화된 것이다. 이렇듯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형성된 이용적 담론은 공원이 지닌 가치 인식과 함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내포함으로써 단순한 이용이 아닌 주인의식을 발휘하는 새로운 공원이용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시민의식의 성장으로 인한 자발적 참여의식과 봉사의식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의 기초가 된다(Joo, 2005: 74)는 점에서 시민참여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는 서울숲은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 장소적 담론: 문화적 가치를 담은 도시공원의 역할 변화

공원녹지가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Kim and Kim, 2011: 157). 이는 도시공원이 더 이상 산책로와 쉼터만을 제공해 주던 이전의 도시공원이 아님을 시사한다. 니콜 콜롬브(Nicole Collomb)도 '도시공원 국제심포지엄'에서 좋은(High quality) 공원과 도시 내 녹지공간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Collomb, 2010: 23)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회의 분위기 등에 발맞추어 공원은 늘 변화를 촉진하였고, 도시문화를 담는 그릇으로 그 역할이 변화되었다.

서울숲 또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시민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실천하기 위해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공원에서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전문가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상의 사례에서 도시공원은 더 이상 자연을 제공해 주는 쉼터만이 아닌, 청소년교육,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일자리 창출 등 이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함께 끌어안는 공원의 변화된 역할(Walker, 1994: 1)을 인지할 수 있다. 단지 보여주기 위한 공원이 아닌 이용적 측면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하여 새로운 공원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숲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용하는 이 시기의 이용자들은 서울숲이라는 공간을 장소로 받아들여 장소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장소적 담론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있으며, 서울숲이 이용자로 하여금 애착을 갖게 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배후에 도시민의 삶과 문화를 담은 서울숲이 자리하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 1인 미디어의 이용이 활성화 되었으며, 공간에 대한 정보나 공간에서의 경험에 따른 감정 및 의견을 자유롭게 게재하는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숲 방문객이 서울숲에서 혹은 서울숲 방문 후에 블로그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와 감정을 기록·공유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 이용자들이 생성하는 이야기들 즉, 미시담론의 내용과 그 형성 배경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서울숲이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에는 서울숲 조성과 관련된 주체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설계가나 서울시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시각이 반영된 사회적 담론은 시민들이 정치적 성과(물)에 대한 관

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여론과 그 사회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형성기의 서울숲 이용자들은 서울숲을 비교적 관점에서 평가 및 서술한다. 외국 공원과 비교, 국내 타 공원과 비교를 통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는데, 긍정 및 부정적 장소감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이 시기의 담론은 그것을 접하는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공간에 대한 무조건적 비판 혹은 무비판적 수용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조성된 지 4~5년 후인 전개기에 게시된 블로그에는 주로 공원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난 후의 이용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증가한 참여의식과 봉사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숙기에는 이용자들이 명사와 형용사를 이용하여 '서울숲은 어떠한 곳이다.', '무엇을 하기에 좋은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모습에서 장소로서의 서울숲에 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소적 담론은 도시공원의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공원에 대해 만족을 느낀 이용자들이 서울숲을 자신만의 언어로 해석하면서 형성된 것이다.

시기별로 살펴본 서울숲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미시담론에는 공원을 이용하는 개별 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호작용, 경험, 이야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일반 이용자들이 서울숲을 해석하고, 그곳에 의미를 부여함에 따른 결과이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들이 공간을 설명하거나 비평하기 위해 거쳤던 과정으로, 이제는 전문가와 더불어 일반 대중 또한 공간을 해석하는 데 능동적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공원에 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문가 담론보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블로그 내의 '미시담론'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성과 신뢰도가 낮다는 한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에 나타난 미시담론은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증가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미시담론 연구는 향후 1인 발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공유를 확인할 수 있는 '넷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블로그를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이를 이용한 계층에만 연구의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전(全) 계층의 이용자를 아우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개체'를 중시하는 일상사와 미시사 연구의 중요도가 큰 현 시대에 미시담론이라는 틀로 일반인의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의의가 있다.

주 1. 대표적인 예로, 서울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 중 길동생태공원, 남산공원, 독립공원, 보라매공원, 북서울꿈의숲, 서서울호수공원, 서울대공원, 서울숲 등 15개 공원을 대상으로 통합웹사이트(<http://parks.seoul.go.kr>)를 운영하고 있다. 각 공원의 웹사이트에는 Q&A와 이용후기를 적는 게시판이 있어 이용자들이 공원에 대한 문의·건의 및 이용후기를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다. 최근(2013.02.14.)에는 모바일 웹사이트(<http://m.parks.seoul.go.kr>)를 오픈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공

원 소식을 접하고, 건의사항 및 이용후기를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주 2. 실제 이용자들이 1인 미디어에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얼마나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여 블로그 검색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공원은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공원 중 시민과의 소통 창구 즉, 홈페이지가 개설된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검색 영역을 '제목'으로 한정하였다. 2014년 3월 25일 기준으로 서울대공원이 53,901개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숲이 41,63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선유도공원(22,490개), 여의도공원(18,611개), 보라매공원(12,749개), 월드컵공원(11,664개), 북서울꿈의숲(10,858개), 시민의숲(9,225개), 남산공원(4,584), 서서울호수공원(2,601개) 순으로 블로그 개수가 많았다. 조성된 시기를 고려하였을 때, 서울숲을 서술한 블로그의 수는 매우 많은 것이며, 이는 곧 서울숲의 이용도와 인기도를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주 3. 2014년 5월을 기준으로 네이버의 순방문자가 3천 9십만 명 이상으로 1위이며, 다음, 티스토리가 그 뒤를 이었다(출처: 코리아 클릭 <http://www.koreandclick.com/>).
- 주 4.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은 일반인들이 서울숲을 직접 이용한 후 남긴 게시글이기 때문에 서울숲 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근거리 위치하여 서울숲과 함께 자주 거론되는 주변의 수상복합 아파트 및 식음료점 등의 구체적인 명칭과 부동산 관련 용어는 제외시켰다. 부동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갤러리아포레, IT밸리, 고시텔, 원룸, 더샵, 분양, 미용실, 맛집, 라떼킹 등 총 열 두 개의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 주 5.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솔직한 의견과 감정을 적은 블로그 게시글을 수집하기 위해 상업성을 떠나거나 방문자를 의식하여 블로그(Blogging)을 한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주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논의함'이라 정의되어 있다.
- 주 7. 담론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한 연구자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이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담론의 핵심 주제로 삼고, 담론을 이들의 상호의존성 아래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한 그의 관점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담론과 상관성이 적어, 본 논문에서 정리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 주 8. 이 외에도 서울의 '센트럴 파크' 문 열린다(The Se-Gye Ilbo, 2005), '서울의 센트럴파크' 시민 품으로(The Kook-Min Ilbo, 2005), 서울의 '센트럴파크' 열린다... 특집 서울숲 18일 개장(The Korea Economic Daily, 2005) 등이 있다.
- 주 9. 2005년 7월 8일에 개최된 "서울숲 좌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배정환 교수는 생태적이지 않은 150년 전의 공원 모델과 비록 마케팅 수단일지라도 '생태숲'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서울숲을 비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005: 103).
- 주 10. 시민의식은 윌 킴리카(W. Kymlicka)와 웨인 노만(W. Norman)에 의하면 '법적지위로서의 시민의식'과 '바람직한 시민의 활동으로서의 시민의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민의식의 개념은 후자에 가까우며, 이는 시민의 민주적 역량 또는 시민의 공적활동 능력과 책임감 즉, 시민의식과 시민으로서의 덕성, 그리고 시민의 참여를 가리킨다(Kymlicka and Wayne, 1995; Jeon, 2011: 786에서 재인용).

References

1. Baek, S. K.(1995) The Semiology of Report, Sungkyunkwan Publishing Department.
2. Bark, S. H. and Y. G. Kim(2011) The landscape of Seonyoo-do Park captured in one-person media focusing on blog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9(3): 64-73.
3. Bell, A. and Peter G.(1998)(eds.) Approaches to Media Discourse. Blackwell.
4. Cho, E. Y. and D. K. Kim(2012) Analysis of visitors' behavior by blogs.

- Design Forum 35: 77-86.
5. Cho, H. J.(2010) Aspect and meaning of social discussion in media discourse of clothing reuses. *Journal of the Society of Practice Folkloristics* 16: 121-165.
 6. Choi, Y. H.(2005) What Seoul forest brings us, what is the task of urban parks in the 21st century?.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209: 99.
 7. Collomb, N.(2010) Value of urban park, new ideas on urban parks.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010.11.24.
 8.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2005) What Seoul forest brings us, what is the task of urban parks in the 21st century?.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209: 98-103.
 9. Huckin, T.(2002) Textual silence and the discourse of homelessness. *Discourse & Society* 13(3): 348-373.
 10. Jang, B. H.(2005) The park starts from everywhere.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209: 96.
 11. Jeon, S. Y.(2011) Impacts of local civic consciousness formation: Focused on the Yong-in city.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12): 785-799.
 12. Joo, S. S.(2005) *Volunteering Theories, Institutions & Policies*. Seoul: Arche Publishing House.
 13. Kim, K. K., S. J. Shin, and J. J. Kim(2009) Convergence era and individuals as a medium.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14. Kim, Y. I. and J. G. Kim(2011) Citizens' perception and satisfaction for urban parks and greens: A case study of Anyang city, Bucheon city and Uijeongbu city in Korea. *Journal of Korea Planners Association* 46(1): 157-170.
 15. *Korea Landscape Architecture Newspaper*(2013) May 2nd, Beyond the Resident Participation to Initiative of Local People.
 16. Kymlicka, W. and N. Wayne(1995) *Return of the Citizen: A Survey of Recent Work on Citizenship Theory in Theorizing Citizenship*. Ronald Beiner (ed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7. Lee, J. W.(1993)(Trans.) *L' Ordre du Discours*. Seoul: Sae-gil.
 18. Lee, J. W., I. W. Park, and J. H. Kim(1996) What is discours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discourse concept.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56: 257-290.
 19. Mo, K. H., M. J. Kim, and S. M. Song(2010) A survey on the civil consciousness of Korean youth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2(1): 77-101.
 20. Park, J. W.(2012a) An analysis of social discourse on the enactment of school sport promotion law produced in the media.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2(9): 434-446.
 21. Park, Y. M.(2012b)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consumption of space in Seonyudo Park.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2. Seoul City(2006) *Seoul Reflects the Future of Us: The 3rd Local Election (2002~2006) the Result of Policy*, Planning Officer of Seoul.
 23. The Cho-Sun Ilbo(2005) 'Central Park' of Seoul is coming soon.
 24. The Dong-A Ilbo(2005) June 9th, 'Hyde Park of Seoul', Seoul Forest will be opened on June 18th.
 25. The Kook-Min Ilbo(2005) June 9th, 'Central Park of Seoul' will come to citizen.
 26. The Korea Economic Daily(2005) June 11th, 'Central Park' of Seoul, Seoul Forest will be opened on June 18th.
 27. The Se-Gye Ilbo(2005) June 9th, 'Central Park' in Seoul will be opened.
 28. Walker, C.(2004) The public value of urban parks. In: *Beyond Recreation: A Broader View of Urban Parks*. The Urban Institute.
 29. <http://www.koreanclick.com/>

Blogs

1. World according to Jennis, It's my world, <http://jennis2000.egloos.com/313943>
2. Jetlag Dreams, <http://sokul.blog.me/80016412083>
3. 소확행, <http://blog.naver.com/leehoo71/100029353099>
4. 달콤한 나의 도시, http://hi_doctor.blog.me/50010510209
5. 번데기의 꿈, <http://blog.naver.com/lovedangyou/24426969>
6. 빵이의 감칠맛 나는 세상이야기, <http://blog.naver.com/tiramisu06/30009400739>
7. 래희,래은이네 가족이야기, <http://rayshome.tistory.com/426>
8. FactoryDotcat, <http://blog.naver.com/dotcat/140014505825>
9. 이런저런 이야기의 공간, <http://bnhikari.egloos.com/1487926>
10. MuSt Have 열정, 용기 그리고 무모함, <http://blog.naver.com/hularyouree/120029795510>
11. 빛나는 무인도, <http://blog.naver.com/giantjiwa/80041962442>
12. 타코&방새&유빈, <http://moonhawk.tistory.com/4>
13. 순간이 영원해 지는 곳, <http://nenunena.tistory.com/40>
14. 세상사랑, <http://blog.naver.com/choikya/110036166621>
15. Cool & Jazzy Life, <http://cooljazzylife.tistory.com/795>
16. Story teller, <http://www.cyworld.com/ppoooyoo2/80106>
17. 모다's Blog ... Fun with life!, <http://blog.daum.net/modamoda/14475829>
18. 나무엘, http://i_desire.blog.me/90064525188
19. 다이매, <http://blog.naver.com/sym20528/110051517967>
20. 이 세상의 나침반이 되자!!, <http://pgy7557.tistory.com/52>
21. 나는 내일의 ★, <http://blog.naver.com/wish1417?Redirect=Log&logNo=120067760100>
22. RivErmAn-잔잔한 Vandalist, <http://riverhominis.com/110093488298>
23. 내겐 좋은 친구가 있었네! <http://blog.naver.com/yooina8/30080758872>
24. made in 초록구슬, <http://blog.naver.com/yeowon51/30122202232>
25. 구구월드, <http://eunchimingg.blog.me/100134113332>
26. Antic Nomad, <http://isygo.tistory.com/582>
27. 푸르미의 산림이야기, <http://blog.daum.net/kfs4079/17207364>
28. 사비나의 평범한 블로그, <http://blog.naver.com/sabina0370/30161644043>

Received : 19 October, 2014

Revised : 22 November, 2014 (1st)
19 December, 2014 (2nd)

Accepted : 19 December, 2014

3인익명 심사필